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9년 3월 23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지난 시간 수업내용을 쪽지시험을 통해 복습할 수 있다.
2. 춘향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3. SAT 모의고사를 풀 수 있다.
4. 자주 사용되는 한자에 대해 알 수 있다.
5. 관용어의 쓰임을 알 수 있다.
6. <변화하는 조선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읽을 자료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네이버 초등 백과사전, 7급 한자교재,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SAT KOREAN

교시	수업내용
1교시 9:30-10:15	숙제 검사 및 쪽지시험
2교시 10:15-11:00	춘향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점심 11:00-11:20	
3교시 11:20-12:00	SAT 모의고사 풀기
4교시 12:00-12:40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해 공부하기
숙제	1. 어휘 2. 한자 3. 관용어 4. 읽기자료

오늘 배운 내용과 숙제로 공부해 온 내요을 다음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어휘>

1. 기생 :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또는 풍류로 흥을 돋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2. 암행어사 : 조선 시대에,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방관의 치적과 비위를 탐문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서 개선하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 벼슬.

3. 판소리 : 광대 한 사람이 고수(鼓手)의 북장단에 맞추어 서사적(敘事的)인 이야기를 소리와 아니리로 엮어 발림을 곁들이며 구연(口演)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악
4. 익살 :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나 몸짓.
5. 해학 :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
6. 수청 : 아녀자나 기생이 높은 벼슬아치에게 몸을 바쳐 시중을 들던 일.
7. 부임 :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감.
8. 탐관오리 :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9. 부정부패 : 바르지 못하고 타락함.
10. 곤경 :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



확인 학습 2

✎ 흐린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쓰고, 빈칸에 훈(뜻)과 음(소리)을 쓰세요.

1 4월 5일은 나무를 심는 植木日입니다.

훈 음

2 준호는 우리 학교의 名物입니다.

훈 음

3 나는 미술 시간에 쓸 예쁜 色紙를 골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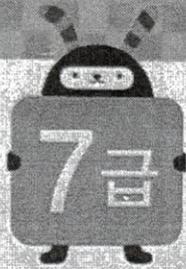
훈 음

4 이 비행기는 地上 5000미터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훈 음

5 나는 下校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훈 음



7급 빨리따기

월 일

확인

이름

植

木 + 直 = 植

나무 목

곧을 직

나무(木)를 곧게(直) 세워서 심는다는 데서 심다를 뜻합니다.



훈심을 음식

木부수(총 12획)

植植植植植植植植植植植植植植植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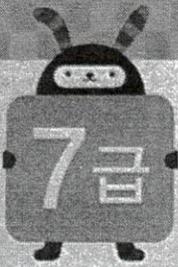
필순에 따라 빈칸에 植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植	植	植	植	植	植	植
심을 식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植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植物() : 뿌리, 잎, 줄기로 산소를 배출하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 (物 : 물건, 물)

• 植木日() :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날. (木 : 나무, 목, 日 : 날, 일)



7급 빨리따기

월 일 확인

이름

物

牛 + 勿 = 物

소우 말물

뜻을 나타내는 牛(소 우)와 소리를 나타내는 勿(말 물)을 합해, 소가 만물의 대표라는 데서 **물건**을 뜻합니다.

훈 물건 음물 牛부수(총 8획) 物物物物物物物物



필순에 따라 빈칸에 物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物	物	物	物	物	物	物
물건물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物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動物 () : 식물과 달리 움직이는 생물체. (動 : 움직일 동)
- 名物 () : 어떤 지방의 이름난 산물. (名 : 이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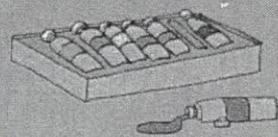
7급 빨리따기

날 일
이름

확인

色

ㄱ → 色 → 色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나란히 앉아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색, 빛을 뜻합니다.

훈빛 음색

色부수(총 6획)

色 色 色 色 色 色

필순에 따라 빈칸에 色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色	色	色	色	色	色	色
빛색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色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色紙 () : 색종이.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인 종이. (紙 : 종이 지)

· 白色 () : 흰색. (白 : 흰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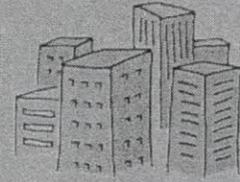
빨리따기

월 일
이름



上

二 → ㄴ → 上



지평선 위에 점을 표시하여 위를 뜻합니다.

훈잇 음상

—부수(총 3획)

上 上 上

필순에 따라 빈칸에 上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上	上	上	上	上	上	上
윗상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上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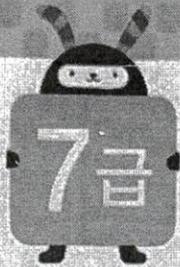
· 地上 () : 땅의 위.

(地 : 땅 지)

· 海上 () : 바다의 위.

(海 : 바다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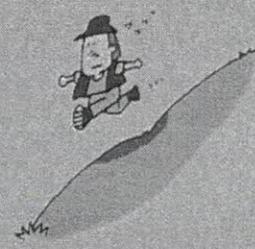
上的 상대 반의어 - 下(아래 하)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下 一 → 冫 → 下 

지평선 아래에 점을 표시하여 아래를 뜻합니다.

훈아래 음하 -부수(총 3획) 下 下 下

필순에 따라 빈칸에 下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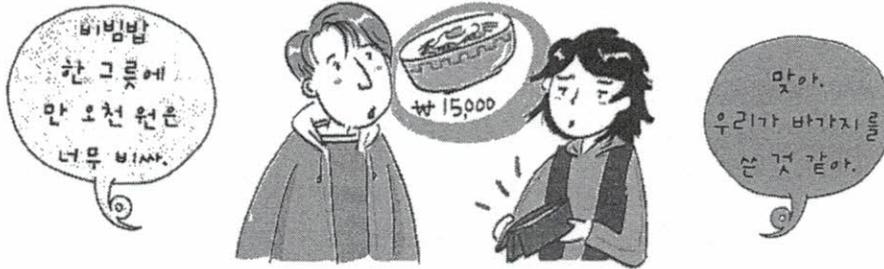
下	下	下	下	下	下	下
아래하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下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下校 () : 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옴. (校 : 학교 교)
- 天下 () : 하늘 아래 온 세상. (天 : 하늘 천)

下的 상대 반의어 - 上(윗 상)

대화



- 지 영: 여기 정말 비싸지 않나?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어. 저녁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사 먹어야겠어.
- 에 릭: 그래. 이 식당은 너무 비싼 것 같아. 다른 식당에서 먹을 걸 그랬어.
- 지 영: 다른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로였을 거야. 원래 관광지는 다른 곳에 비해서 값이 비싼 편이야.
- 에 릭: 그래.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비빔밥 한 그릇에 만오천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
- 지 영: 우리가 바가지를 쓴 것 같아. 가격표도 안 보고 주문한 게 실수였어.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올 걸 그랬어.
- 에 릭: 기분은 안 좋지만 빨리 잊어버리자. 그래도 비빔밥은 맛있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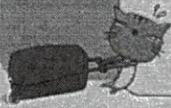
* 바가지를 쓰다: 요금이나 물건 값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내다

활용예문

- ▶ 귀고리를 하나 샀는데 바가지를 쓴 것 같아요.
- ▶ 나는 이걸 3만 원에 샀는데 친구는 2만 원에 샀대. 바가지를 썼나 봐.
- ▶ 가: 낯선 곳에서는 바가지 쓸 수도 있으니깐 조심하세요.
나: 맞아요. 잘 모르는 곳에서는 쇼핑하기가 겁나요.

새 어휘와 문형

- 편의점 컵라면 원래 관광지 마찬가지로 바가지 쓰다
 가격표 도시락 귀고리 낯설다 -에 비해(서)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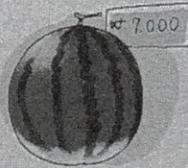
친구와 같이 시장 놀이를 해 보세요.

한 사람은 물건을 팔고, 한 사람은 물건을 사야 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원래의 가격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물건 값을 깎아야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원래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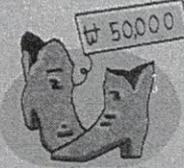
이 꽃은
싱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깎아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온 꽃이에요.
요즘 졸업식이 많아서
다른 꽃집은
더 비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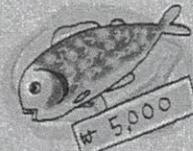
과일가게



신발가게



옷가게



생선가게

한 걸음 더

- ▶ 바가지(를) 씌우다(⇒) 요금이나 물건 값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내게 하다
여름에 해수욕장에서는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많다.
- ▶ 바가지(를) 굶다(⇒)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다
오늘도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바가지를 굶을 거예요.
- ▶ 쓰다
 - 오늘 배운 문장을 공책에 두 번씩 써 오세요.
 - 저기 파란 색 야구 모자를 쓴 남학생이 우리 형이에요.
 -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컴퓨터를 쓸 줄 안다.



대화



- 마리오: 지영 씨, 뭘 그렇게 열심히 써요?
 지 영: 승우 씨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마리오: 매일 만나는데 편지를 쓸 필요가 있어요?
 지 영: 어떤 부부가 서로를 칭찬해 주는 편지를 책으로 펴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편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대요. 그래서 저도 승우 씨에게 써 보려고요.
 마리오: 와! 승우 씨는 참 좋겠어요. 지영 씨는 얼굴은 물론이고 마음도 예쁘네요. 한국 여자들은 모두 지영 씨처럼 예쁘고 착해요?
 지 영: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다가는 멀미하겠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은데요.
 마리오: 그건 비행기 태우는 게 아니라 칭찬이에요. 비행기 태우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 비행기(를) 태우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칭찬하다

활용예문

- ▶ 비행기 태우는 줄 알았지만 잘 어울린다고 하는 점원의 말을 듣고 옷을 두 벌이나 사 버렸다.
- ▶ 어지러우니까 비행기 그만 태워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 ▶ 가: 아빠, 아무리 찾아봐도 아빠처럼 멋진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나: 비행기 태우지 말고 솔직히 말해 봐. 용돈이 필요하니?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칭찬하다 | <input type="checkbox"/> 펴내다 | <input type="checkbox"/> 도움 | <input type="checkbox"/> 태우다 | <input type="checkbox"/> 멀미하다 |
| <input type="checkbox"/> 어지럽다 | <input type="checkbox"/> 솔직하다 | <input type="checkbox"/> 용돈 | <input type="checkbox"/> -은/는 물론(이고) | |



함께해요



다음 상황을 보고 친구와 함께 비행기를 태워 봅시다.



칠판을 닦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우는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구나.



우리 반 친구
이름 :



한 걸음 더

- ▶ 태우다
 - 길을 잃은 할머니를 댁까지 태워 드렸어요.
 - 아버지는 마당에서 낙엽을 태우고 계셨다.
 - 강한 햇볕에 피부를 태우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바가지 쓰다 바가지 씌우다 비행기를 태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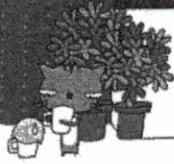
- 1 가: 민수는 _____ 는 말을 너무 자주 해요.
나: 맞아요. 그런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은 좋아요.
- 2 가: 민지는 내 모자랑 같은 걸 만 원이나 싸게 샀대.
나: 너 _____ 구나.
가: 응, 다음부터는 잘 알아보고 사야겠어.
- 3 가: 관광지에서 _____ 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정해진 요금만 받는 곳도 많아요.
- 4 가: 시장에는 싸고 좋은 물건이 많아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
나: 시장에서도 손님들에게 _____ 는 곳이 많으니까 잘 비교해 보고 사야 해요.
- 5 가: 구두쇠인 과장님이 어떻게 밥값을 내셨어?
나: 과장님처럼 멋진 분과 일하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_____.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이야기해요

바가지(를) 쓰다 / 비행기(를) 태우다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어머니: 여보, 이 코트 어때요? 시장에 갔다가 한 벌 샀어요. 예쁘지요?

승우: 어머니도 그렇게 입으시니까 영화배우 같아요. 잘 어울리는데요.

어머니: 그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아가씨라고 해.

아버지: 얼마 줬어요?

어머니: 십이만 원밖에 안 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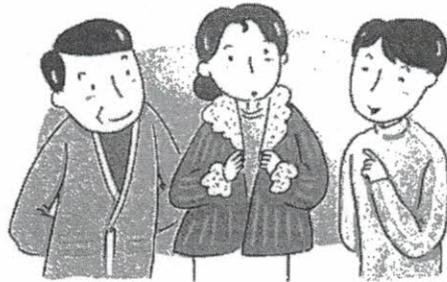
아버지: 쫓쫓, 당신이 바가지 쓴 거예요. 우리 학교 김 선생님이 오늘 이 코트랑 똑같은 걸 입고 왔는데 칠만 원에 샀대요.

어머니: 그럼 그 아가씨가 나한테 바가지 썼었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특별히 더 싸게 판다고 했는데요.

승우: 하하하, 어머니. 그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비행기를 태워서 기분 좋게 한 다음에 물건을 파는 거죠. 그 말을 다 믿으셨어요?

어머니: _____

아버지: _____



위의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어머니는 그 코트를 얼마나 더 비싸게 샀어요?
- 2 승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요?
- 3 물건을 살 때 바가지를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어휘

똑같다 특별하다 장사하다

<변화하는 조선 백성들의 삶>

1. 변화하는 조선의 농촌 사회

외세의 침략 이후 조선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히 농사법이 크게 바뀌어 농민들은 예전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확을 올릴 수 있었어요.

논농사에서는 모를 한 곳에 심었다가 싹이 자라면 논에 옮겨 심는 이앙법(모내기법)이 보급되었고, 밭농사에서는 견종법(골뿌림법)을 쓰게 되었지요. 견종법은 평평한 땅에 고랑을 만들어 작물을 심는 방법으로 바람의 피해를 크게 줄여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었어요. 또 논밭을 일구고, 거름을 내는 일을 할 때 쓰는 농기구들도 새롭게 발전시켰지요. 농사짓는 방법에서부터 사용하는 도구까지 발전을 이룩하자 농사일이 훨씬 쉬워졌고 수확도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덕분에 농촌에는 새로 부자가 된 농민들이 생기고, 담배나 인삼 같은 값비싼 농작물을 재배해서 큰 돈을 버는 농민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 인기 있던 작물에는 목화, 약재, 고추, 호박, 삼 등이 있었어요. 또 흉년이 들 것에 대비해 고구마나 감자를 심는 곳도 많았지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농사지을 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네 명의 소작농(小作農)¹⁾이 짓던 땅을 한 사람이 지을 수 있게 되니 세 사람은 소작을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농사지을 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 저곳을 떠돌며 낱팜팔이²⁾ 생활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두레>

두레는 농민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하는 공동체를 가리켜요. 모내기나 김매기와 같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이 필요할 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서로의 일을 해주는 것이지요. 두레는 먼 옛날부터 있었지만 조선 시대 때 농사법이 크게 발달하면서 농촌에서부터 더욱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두레는 남자 두레, 여자 두레와 같이 성별로도 나뉘고, 청년 두레, 장년 두레, 노인 두레와 같이 나이로도 나뉘며, 6~10명 정도의 작은 두레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규모의 두레도 있지요.

2. 광산과 상업의 발달

우리 나라는 삼국 시대부터 중국과 일본에 금, 은, 쇠 등을 수출했을 만큼 발달된 광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 초기에는 이런 광산업을 나라에서 맡아했어요. 개인이 함부로 광산을 세웠다가는 엄한 벌을 받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이 광물을 캐내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어요. 대신 나라에서는 정해진 만큼 세금을 받았지요.

여러 광물들 중에서도 은을 캐내는 광산의 개발이 활기를 띠었어요. 청나라에 보내기 위해 많은 양의 은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광산의 발달과 더불어 상업도 조금씩 일어나게 되었어요. 원래 조선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쓰거나 물건끼리 맞바꾸는 게 보통이었지요. 그러나 전쟁을 치른 뒤 황폐(荒廢)³⁾해진 농촌에서 살 수 없었던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상업에 뛰어들면서 장사는 활발해졌어요. 이들은 육의전(시전)⁴⁾ 상인들과는 달리 아무 곳에서나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난전 상인이라고 했지요.



시전 상인들은 관가에 난전 상인들이 장사를 못 하게 해달라며 호소(呼訴)⁵⁾를 했고, 나라에서는 그 뜻을 받아들여 난전을 못 하게 막기도 했지요. 이것을 '금난전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상인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한편 지방에서는 보부상들의 활동으로 장시가 활기를 띠어 상업 경제가 발전해 갔어요.



조선의 보부상은 보통 지방의 장시를 돌아다니는 행상을 가리켜요. 이와 달리 도시의 큰 시장에서 활동하는 상인은 난전, 즉 자유 상인으로 사상이라 불렸어요.

3. 무역의 발달과 화폐의 사용

조선 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계급이 있었어요. 공산품을 주로 만드는 장인들 계층은 상민에 속했어요. 이들은 신분상 농민 다음으로 꼽히면서 점차 발달해 가는 상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어요.

장인들은 주로 관청이나 궁중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농기구, 동전, 무기, 낫그릇, 금속 활자, 기와, 종이, 대나무 제품 등 종류도 다양했지요. 이런 물건들 중에는 뛰어난 기술로 빚어 낸 훌륭한 예술품들도 있었어요.

장인들이 만들어 낸 물건을 외국과 사고파는 무역도 발달했어요. 조선에서 하는 무역은 주로 중국에 조공(朝貢)⁶으로 보내는 물건들이나 중국에서 답례(答禮)⁷로 보내 온 물건들을 사고파는 공무역과, 개인이 나라를 넘나들며 장사를 하는 사무역이 있었어요.

이 때 조선에서는 인삼, 은, 가죽, 소금, 종이 등을 팔고, 청나라에서는 고급 비단, 말, 약재, 문방구 등과 같은 사치품을 주로 가져왔지요.



인조 때에는 산업의 발달에 맞추어 많은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나라의 상평청에서 만든 금속 화폐인 '상평통보'는 사람들이 널리 쓰면서 숙종 때에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한편, 전쟁 후 조선에는 신분상의 변화도 일어났어요. 양반은 원래 문관과 무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관직이나 과거 시험의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양반의 후손들을 가리켰지요. 그러다 보니 양반의 수는 점차 늘어나게 되었어요. 중인들도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지위가 올라갔으며, 농민들 중에도 토지를 갖게 된 부자들이 생겨났어요.

임진왜란 때 노비 문서가 많이 불탄데다가 나라에서도 많이 풀어 주어 노비의 수도 줄어들었지요. 이렇게 왜란과 호란을 겪은 조선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4. 내용 정리

외세의 침략 이후에 조선에는 새로운 농사법과 농기구가 보급되어 농촌에서는 다양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민들은 일터를 빼앗기고 다른 고장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개인도 광산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더불어 상업도 발달해 장사꾼들이 넘쳐났고, 나라 곳곳에서는 5일장이 서게 되었습니다.



공산품을 주로 만드는 장인들은 상민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무역과 화폐가 발달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나라 살림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변화하는 조선 백성들의 삶 (천재학습백과 초등 스토리텔링 한국사)

<한자>

* 다음 밑줄친 단어의 한자어를 골라 그 번호를 쓰세요.

- ①江南 ②花草 ③海外 ④自然

봄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옵니다. ()

삼촌은 해외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

할머니는 화초에 물을 주고 계십니다. ()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

<역사 >

1. 광해군은 ()나라와 ()이 싸울때 두 나라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나라의 이익을 얻기 위해 중립외교를 했다.
2. 광해군은 전쟁을 막고 군사를 키우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기도 했다. 서인들은 그것을 이유로 하여 반란을 일으켜 ()를 왕으로 세우고 광해군은 ()로 귀양을 보냈다.
3. 인조가 왕이 된 후 명나라의 편을 들자 1627년 후금이 조선을 침략해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된 싸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4. 후금이 힘을 키워 만든 나라 이름은? ()
5. 1636년 청 태종이 조선을 침략해 온 싸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6. ()의 치욕 : 조선의 왕인 인조가 청나라의 태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한 사건. 이로써 조선은 명나라와식 관계를 끊고 청나라의 간섭을 받았다.
7. 인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 사람은 청나라를 쳐서 삼전도의 수모를 갚으려고 하였다. ()
8. ()은 나라에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을 쌀로 내게 한 제도예요.
9. 농사짓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효종 때 간행된 책은 무엇인가? ()
10. 효종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붓 속에 든 임명장을 받고 어영대장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11. 십 년 동안 준비했던 ()계획은 효종의 죽음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눈코 뜰 새 없다

눈앞이 캄캄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발등의 불을 끄다

1 가: 네 동생은 지금 방에서 뭐 하니?

나: 주말 내내 놀다가 _____ 숙제하고 있어요.

2 가: 민지 씨,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많이 바쁜가 봐요.

나: 네, 다음 주에 있을 학교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_____.

3 가: 아이고, 우리 언제 이 일을 끝내죠?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 정말 _____.

4 가: 쌍둥이를 키우느라고 _____?

나: 아니에요.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5 가: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려서 _____.

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찾았어요?

6 가: 철수야, 너 바쁜 일은 다 끝났어?

나: 응, 친구가 도와줘서 우선 _____.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춘향전

1. 작품 소개

〈춘향전〉은 우리나라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생의 딸 춘향이 양반집 아들인 이몽룡과 어려움을 이기고 결혼한다는 이야기지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하지만 〈춘향전〉을 누가 썼는지, 언제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남원의 한 사또가 억울하게 죽은 어느 처녀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마련한 살풀이에서 시작되었다고도 하고, 여러 이야기에서 전하는 기생 이야기와 암행어사 이야기를 엮어서 짠 것이라고도 해요.

〈춘향전〉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 판소리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판소리의 내용을 소설로 옮긴 것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을 읽다 보면, 판소리를 듣는 것처럼 흥겨운 가락이 느껴지기도 해요.

〈춘향전〉은 기생의 딸 춘향과 양반 몽룡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월매와 향단, 방자 등 주변 인물들이 펼치는 익살과 해학도 〈춘향전〉이 주는 재미 가운데 하나이지요.

1) 핵심 정리

- 갈래 :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 시간 - 조선 시대 | 공간 - 전라북도 남원
- 주제 : 신분을 넘어선 남녀 간의 사랑
- 특징 : 판소리를 소설로 만들었다.

2) 등장인물

- **춘향**: 남원에 사는 처녀예요. 기생 월매의 딸로, 아버지는 양반이에요. 양반집의 법도와 예절을 갖추었어요.
- **몽룡**: 남원 부사의 아들이예요. 어느 봄날 방자와 함께 바깥나들이를 나왔다가 그네 타는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해요.
- **방자**: 몽룡의 몸종으로 몽룡을 따라다니며 잔심부름을 해요. 익살스런 성격으로 우스갯소리를 잘해요.

· **향단**: 춘향의 몸종으로 춘향을 따라다니며 잔심부름을 해요. 방자와 늘 티격태격해요.

· **월매**: 춘향의 어머니예요. 예전에 기생이었을 때 성 참판을 만나 춘향을 낳아 곱게 길러요.

춘향전

춘향
기생 월매의 딸로
아버지는 양반임.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한양에 간
이몽룡을 기다림.



수청을 거절한 춘향을
감옥에 가둠.

암행어사가 되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춘향을 풀어줌.

이몽룡
남원 부사의 아들로
그녀 타는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함.



변사또
남원에 새롭게
부임한 사또.



3) 줄거리

첫눈에 반한 몽룡과 춘향,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다

기생 월매는 남원 고을의 성 참판의 눈에 들어 그의 둘째 부인이 되고, 어여쁜 딸 춘향을 낳는다. 착하고
곱게 자란 춘향은 열 여섯이 되던 해 단옷날(음력 5월 5일), 광한루에서 그네를 타다가 남원 사또의
아들 이몽룡을 만나게 된다.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 두 사람은 기생의 딸과 사또의 아들이라는 신분 차이 때문에 혼인을 하지는
못하지만,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한 후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춘향

과거시험을 보러 이몽룡이 한양에 간 사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죄로 춘향이 감옥에 갇히다

그사이 남원에는 새로운 사또인 변사또가 부임한다. 변사또는 사또로서 일은 하지 않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춘향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런 그에게 부하들은 춘향에게는 이몽룡이라는 정인이 있으며,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간 이몽룡을 춘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 준다.

그러나 변사또는 그런 사정은 무시하고 무조건 춘향을 데려오라 부하들에게 지시한다. 한편 춘향은 자신을 보러 오라는 변사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몽룡을 기다리겠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변사또는 춘향을 감옥에 가둬버린다.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 거지로 변장하여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가다

한편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갔던 이몽룡은 장원급제를 하여 전라도 암행어사가 된다. 변사또의 악행과 춘향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된 이몽룡은 즉시 남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지로 변장하여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간다. 사람들과 변사또는 거지로 변장한 이몽룡을 무시한다.

이몽룡은 계속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시를 지어 사람들이 돌려볼 수 있게 한다.



변사또

암행어사 이몽룡, 탐관오리 변사또 무리를 잡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준다

이몽룡이 지은 시를 본 사람들은 좋지 않은 예감에 슬금슬금 자리를 뜬다. 오직 변사또만이 술과 흥에 취해 자리를 피하지 못한다. 이때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말과 함께 암행어사 일행과 어사또가 들어닥친다. 어사또는 변사또가 저지른 부정부패의 증거들을 모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준다.

어사또는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하지만, 춘향은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며 어사또의 말을 거절한다.



이몽룡

재회한 몽룡과 춘향, 춘향이 정렬부인의 호칭을 받고 몽룡과 행복하게 살다

어사또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얼굴을 보라 춘향에게 명한다. 춘향은 고개를 들어 어사또를 보고는 깜짝 놀란다. 어사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몽룡이었기 때문이다. 춘향과 이몽룡은 눈물의 재회를 한다. 그 후 이몽룡과 춘향, 월매는 한양으로 올라가 살게 된다.

이몽룡은 더 높은 관직에 올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춘향은 정렬부인이라는 호칭을 받는다. 춘향과 이몽룡은 그 후로도 백년해로하며 살았다.

2. 감상 나누기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향전 역시 그런 경우죠. 춘향전에는 춘향과 이몽룡의 변치 않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랑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춘향은 기생의 딸이고 이몽룡은 춘향이 사는 고을 사또의 아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러한 신분의 차이는 쉽게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이었죠. 그러나 둘은 그 벽을 뛰어넘습니다. 춘향은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해 이몽룡에 대한 의리를 지킴으로써,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곤경에 처한 춘향을 구해주는 것으로써 말이죠. 이에 비해 변사또는 사또라는 높은 신분과 유식함을 갖고 있음에도 고을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않고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분보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바른 마음으로 의리를 지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춘향과 이몽룡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벽을 뛰어넘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판소리계 소설이란 무엇일까요?

판소리계 소설이란, 판소리가 한글 소설로 정리되어 창작된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판소리의 사설(가사)이 소설이 되어 책으로 읽히는 것이지요.

판소리에는 제목 끝에 '가'가 붙고, 판소리계 소설에는 '-전'이 붙어요. 예를 들어 판소리 <춘향가>가 소설로 쓰였을 때는 <춘향전>이라고 하고, 판소리 <심청가>가 소설로 쓰였을 때는 <심청전>이라고 한답니다. 소리꾼과 고수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판소리를 책으로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지요.

판소리는 청중을 직접 앞에 두고 공연을 하므로, 소설에 비해 구성이 보다 극적이에요. 또 판소리는 소설에 비해 입말체를 많이 써서 생동감이 넘칩니다.

잠깐 퀴즈

글을 읽고 아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몽룡이 춘향을 처음 만난 고을과 계절을 바르게 짝 지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남원 - 봄
- ② 통영 - 여름
- ③ 제주도 - 가을
- ④ 한양 - 겨울

2.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세요.

- ① 춘향의 어머니 월매는 양반 신분이다.
- ② 춘향은 이름난 기생이다.
- ③ 몽룡은 양반집 아들이다.
- ④ 방자와 몽룡은 친구 사이이다.

3.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세요.

- ① 신분에 상관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다.
- ②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랐다.
- ③ 남자와 여자가 자유롭게 연애를 하지 못했다.
- ④ 기생은 양반보다 신분이 높았다.

4. 몽룡이 한 말 중에서 작품의 시대를 알 수 있는 문장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종놈 주제에 감히 양반을 놀라느냐?”
- ② “사또는 퇴청하셨느냐?”
- ③ “아버님이 호조 판서 교자를 받아 한양으로 올라가게 생겼다.”
- ④ “비록 오늘은 이별하지만 이 이별이 설마 긴 이별이야 되겠느냐?”

5. 몽룡이 처음 춘향이네 집을 찾아갔을 때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몽룡은 방자와 함께 춘향이네 집에 갔다.

② 춘향은 거문고를 켜며 몽룡을 기다리고 있었다.

③ 월매는 향단을 시켜 진수성찬을 차리게 했다.

④ 향단이 둘의 술상 앞에서 권주를 불러 주었다.

6. 몽룡이 사람들 몰래 춘향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양반집 아들이 기생의 딸을 만나는 것을 들킬까 봐

② 몽룡에게 다른 부인이 있기 때문에

③ 춘향이 밤에 더 예뻐 보이므로

④ 월매가 둘의 만남을 반대했기 때문에

7. 몽룡은 왜 한양으로 가게 되었나요?

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야 해서

② 한양에 원래 부인이 있기 때문에

③ 한양에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④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게 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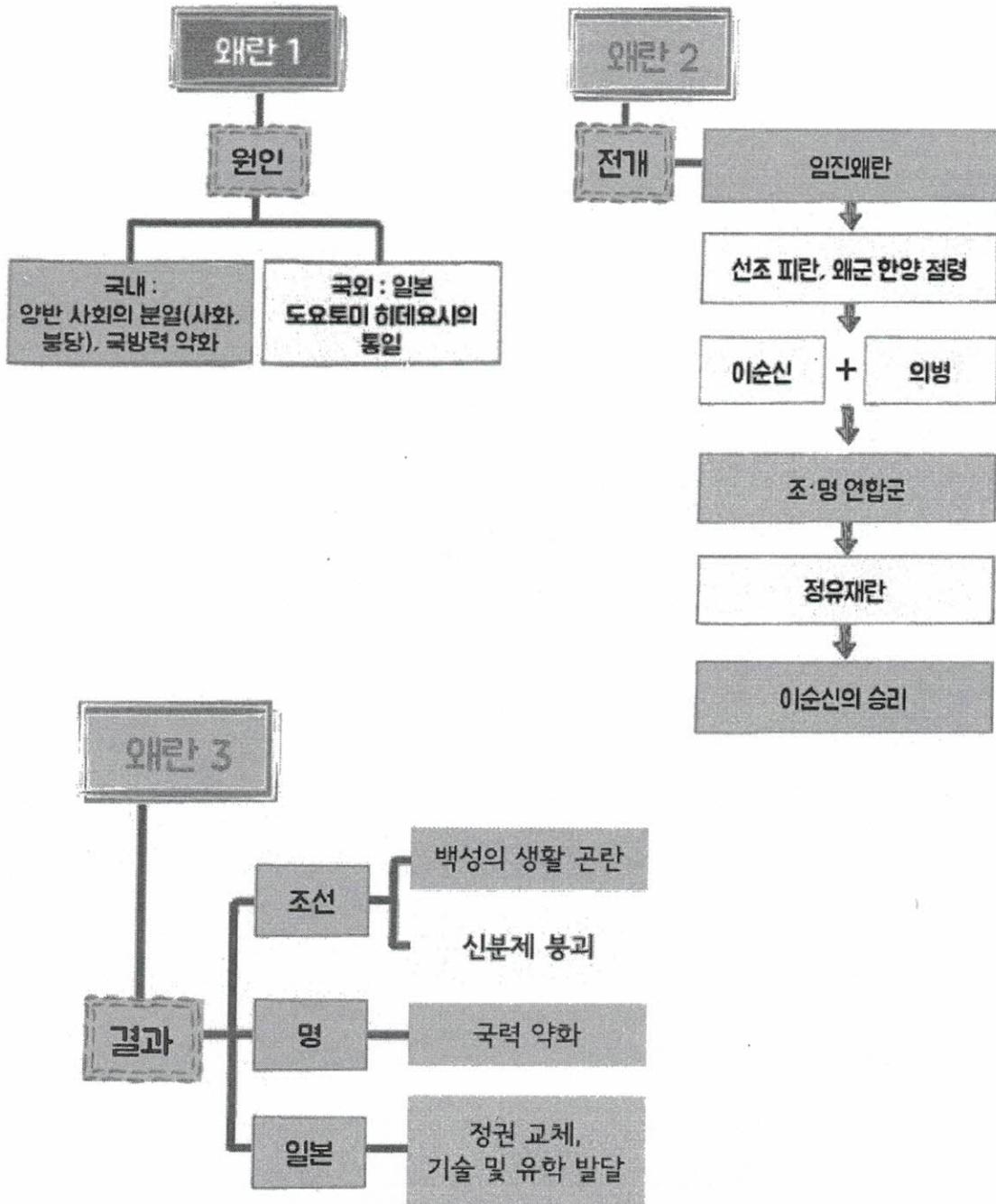
8. 춘향과 몽룡은 헤어지면서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겠다는 뜻으로 서로 작은 물건을 하나씩 주고받아요.
춘향과 몽룡이 주고받은 물건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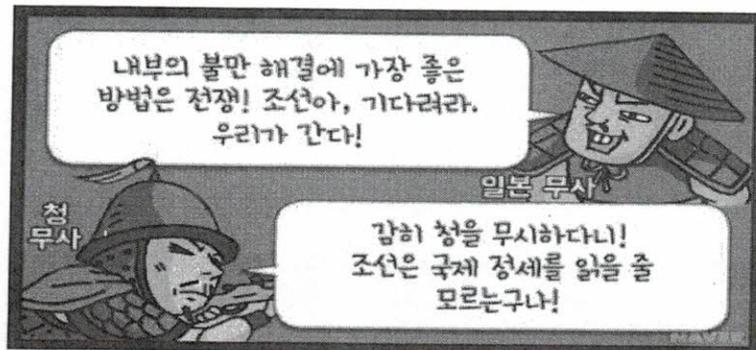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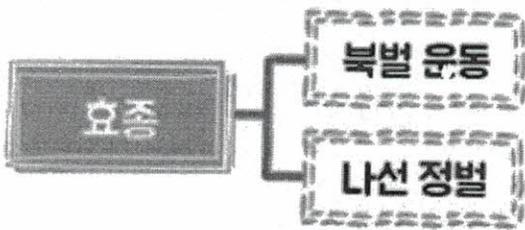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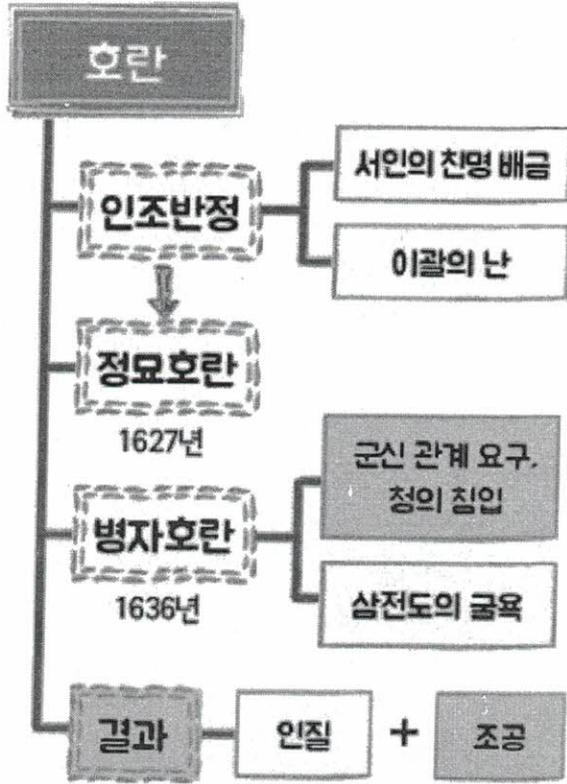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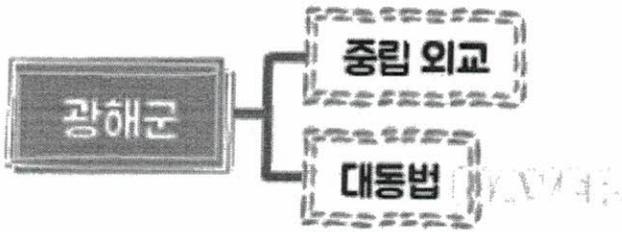
[네이버 지식백과] 춘향전 (천재학습백과 미리보는 중학 문학)

왜란과 호란의 발발

조선은 1592년 일본이 침입한 임진왜란과 1597년에 일어난 정유재란으로 인해 전쟁터로 바뀌었어요.

또한 후금(청)의 침입으로 벌어진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으로 조선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왜란

왜란은 말 그대로 왜(倭), 즉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온 전쟁을 말해.

임진년인 1592년의 임진왜란, 정유년인 1597년의 정유재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지. 왜란에서 조선이 승리했지만 그 피해는 막대했어.

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20년간에 걸친 일본의 분열기를 통일한 인물이야.

하지만 통일 후 문제가 생겼어. 많은 무사가 할 일이 없어진 거지. 이런 불안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택한 것은 외국과의 전쟁이었어.

통일 전쟁을 치르며 막강해진 육군과 조총을 이용해 명을 정벌하러 가는 길을 조선에 빌려달라며 임진왜란을 일으켰지.

전개

선조

선조(1552~1608)는 초기에 제법 정치를 잘 했어. 하지만 봉당 간에 대립이 치열해지자 차츰 정치에 흥미를 잃었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말았어. 이때 선조는 국경 지역인 의주로 피란을 떠나 그곳에서 명에 도움을 요청했어.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침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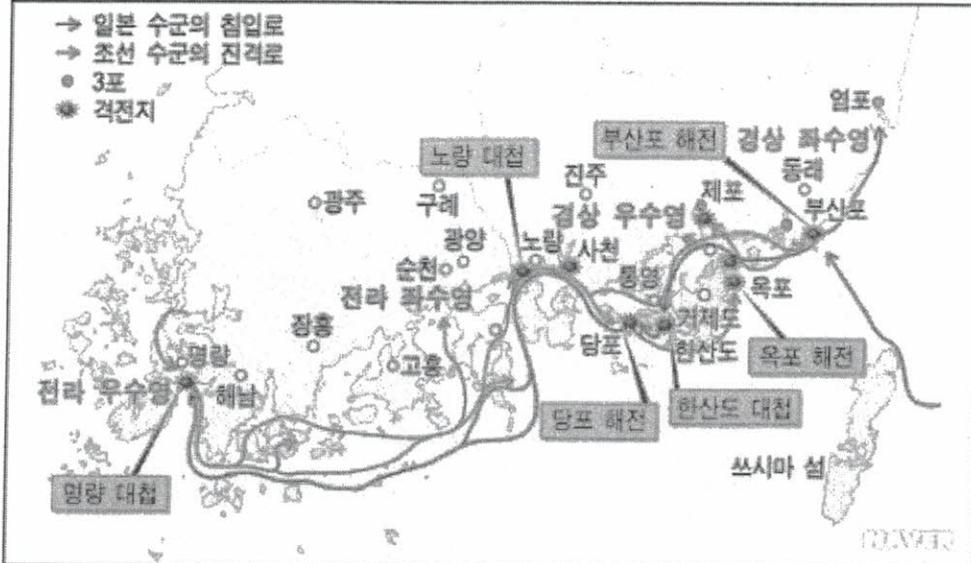
왜군

나는 새도 잡는다는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은 연승을 벌였어. 부산과 한양을 점령하고 함경도와 평양 일대까지 진격할 수 있었지.

이순신

고전을 거듭하던 육군과는 달리 이순신(1545~1598)을 중심으로 한 수군은 서남해안을 끝까지 지켰어.

이순신은 옥포 해전을 시작으로, 당항포, 부산, 한산도 등지에서 승리를 거두었어. 수군의 승리로 조선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곡창 지대를 지킬 수 있었고, 황해를 통해 각종 물자를 보급하려던 왜군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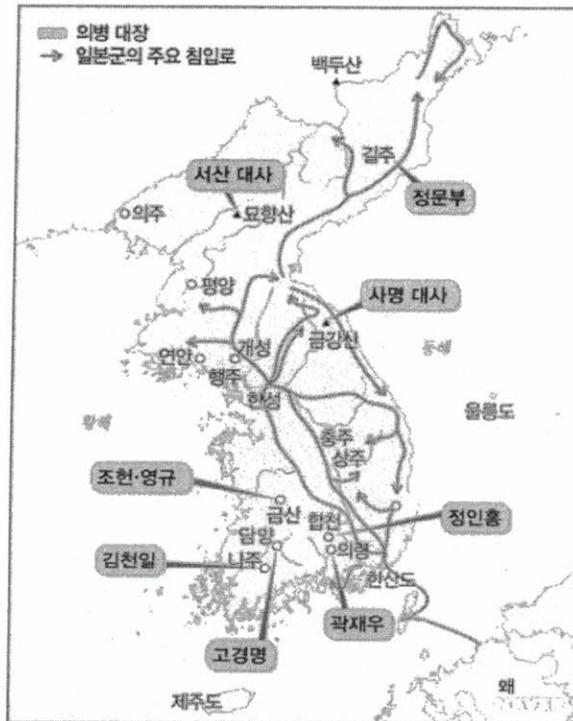


조선 수군의 승리

의병

의병(義兵)은 ‘의로운[義] 병사[兵]’를 말해. 육지의 관군이 연패를 당하는 동안, 이순신의 수군이 바다를 지켰다면, 사람과 전직 관리들이 조직한 의병은 곳곳에서 활약하며 왜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어.

조선에서 심한 차별을 받던 승려들도 승병을 조직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앞장섰지.



임진왜란 당시 주요 의병 항쟁지 지도

정유재란

명은 조선과 왜 사이에 회담을 열어 전쟁을 마치려고 했지만 이 일이 만만치 않았어. 명은 명 황제에게는 일본이 항복했다고, 일본에게는 명이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해 결국 휴전을 맺었지. 하지만 일본의 요구가 조선의 남부 지방을 차지하고, 명의 공주를 아내로 삼는 등 무리한 것이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지. 이것이 바로 정유재란이야.

결과

신분제 붕괴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고, 수많은 문화재를 도둑맞았지.

전쟁으로 농토는 망가져서 농사짓기 힘든 땅이 되었어.

또 전쟁 중 공을 세워 신분이 상승한 상민이나 천민들이 생겨나고, 노비 문서가 불에 타면서 신분제도 무너지기 시작했지.

2. 광해군

임진왜란 당시 피란을 떠난 아버지인 선조를 대신해 백성을 다독이고 군사를 일으킨 사람은 다름 아닌 광해군(1575~1641)이야.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자신의 행동과 대비되어 보였던 선조는 점점 광해군을 미워했고, 그로 인해 광해군은 어렵게 왕위를 이을 수 있었어.

중립 외교

임진왜란 후 명은 멸망했고, 일본도 정권이 바뀌었어. 명을 대신해 중원을 차지한 나라는 여진이 세운 후금(후일 청)이었어.

임진왜란의 영향

명과 후금이 전쟁을 벌일 때 명은 광해군에게 도움을 청했어. 명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힘들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후금을 무시하기도 힘들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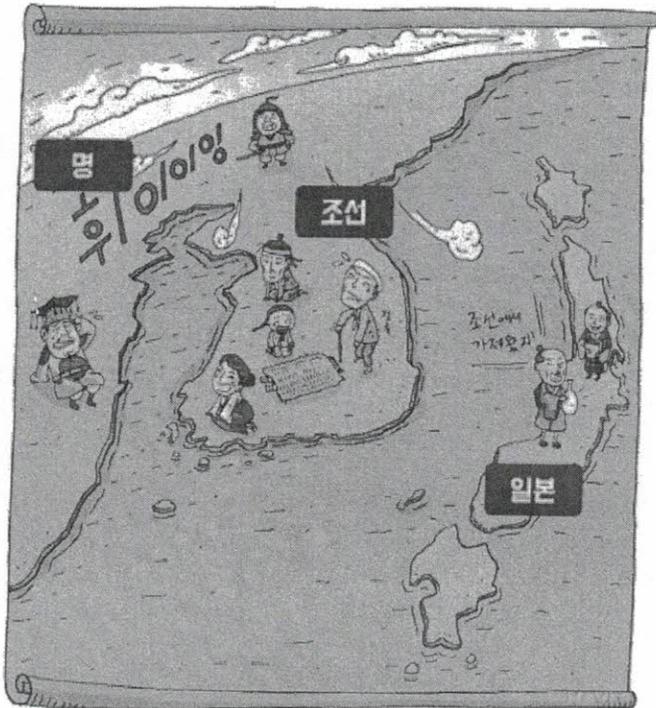
그래서 광해군은 일단 명에 군대를 파견하고, 상황을 보아 후금에 항복하는 중립 외교를 선택했지.

대동법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은 백성에게 고통이었어. 그래서 돈을 받고 특산물을 구매 주는 방납이 퍼졌지.

하지만 방납 상인들이 무리한 돈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컸어.

광해군은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 공납 대신 쌀, 배, 돈으로 걷는 대동법을 실시했어. 이로써 백성의 부담은 줄고, 재정은 튼튼해졌지.



3. 호란

호란(胡亂)은 ‘오랑캐[胡]가 쳐들어와 일어난 난리[亂]’를 뜻해. 조선은 1627년에 정묘호란, 1636년에는 병자호란을 겪었어.

인조반정

성리학은 의리를 중시하는 학풍을 가지고 있어. 이런 성리학자들이 보기에 광해군은 명과의 의리를 지키지 않는 나쁜 군주였지. 그래서 신하들은 인조를 앞세워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어. 이를 인조반정이라 해.

친명배금

명과 친하게 지내고, 후금과는 외교를 맺지 않는 정책을 친명배금이라고 해.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된 인조가 취한 외교 정책이지.

이괄의 난

인조반정에 공을 세웠던 이괄은 그 대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난을 일으켰어. 이괄을 따르던 세력 중 일부는 후금으로 도망가 인조의 즉위가 옳지 않다고 호소했지.

정묘호란

조선은 친명배금을 외치며 후금의 심기를 건드렸었지. 이괄의 난으로 조선 사회가 혼란해진 틈을 타서 후금은 막강한 기마 부대를 이끌고 황해도 부근까지 침입했는데, 이를 정묘호란이라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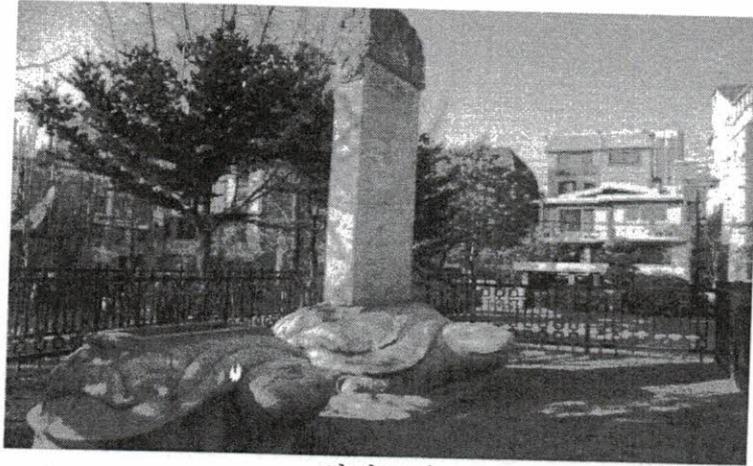
병자호란

후금은 조선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고 요구해왔지만 조선이 이를 거부하였어. 그 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 후 청의 황제가 10만 군대를 이끌고 직접 쳐들어왔지. 이 전쟁이 병자호란이야. 며칠 만에 한양을 점령한 청은 남한산성에 피신한 인조를 집중 공격했어.

삼전도의 굴욕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던 인조는 너무나 빠르게 청군이 몰려오자 남쪽의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어.

하지만 오래 버틸 수가 없었어. 결국 항복을 한 인조는 지금의 잠실 부근인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어.



삼전도비

결과

인질

약속을 이행하도록 잡아두는 사람이 인질이야. 병자호란 후 청은 세자인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후일 효종)을 인질로 데려갔지.

4. 효종

소현 세자의 동생으로, 형과 같이 청에 인질로 끌려갔었어. 소현 세자가 죽은 후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가 바로 효종이야.

북벌 운동

두 차례의 호란으로 조선은 자존심이 상했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사림과 효종은 청을 정벌하고 자존심을 세우자는 북벌 운동을 펼쳤어.

나선 정벌

효종 때 청은 조선에 부탁을 해 왔어. 당시 청은 러시아와 국경 분쟁이 잦았는데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야.

북벌 운동을 펼치며 군사력을 다진 조선은 두 차례 조총 부대를 보내 러시아를 정벌하는 나선 정벌에 나섰어. 여기서 나선은 러시아인(Russian)을 한자식으로 표기한 거야.



[네이버 지식백과] 왜란과 호란의 발발 (생방송 한국사 9, 2017.04.03., (주)복이십일 아
울북)